

판소리·궁중음악·산조... 한국 전통음악 잉태한 남도 음악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13>

제4부 - 일상에 서린 민족문화의 원형

① 호남의 삼현육각과 시나위

이양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개화가 시작되면서 한국문화는 장르를 불문하고 서구 지향적인 세계화를 외쳐왔다. 특히 문화적으로는 서구 중심의 '퓨전'을 지향해왔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지향적인 세계화는 남치는 반면 우리나라의 빛깔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릴 적에 특별한 날에는 짜장면으로 외식했고 조금 더 금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일명 칼집을 하는 경양식을 찾았던 것 같다. 서구적인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생활도 전통은 웬지 뒤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서구적인 것을 고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다.

이같은 전통 단절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전통계승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서구적인 주거문화 속에서 구들장문화, 아파트 홍수시대 속의 한옥문화, 서구적인 외식사업 속의 한식문화 등과 같이 전통 유산에 대한 재인식과, 재발견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계승의 새로운 변화는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악기, 인간 친화적인 선율과 장단이라는 한국 전통음악이 새삼스럽게 재조명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서구적인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정신적 힐링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흐름도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음악은 전통계승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정신 세계를 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전통음악의 한가운데 바로 호남의 국악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에서 충청도의 금강 아래의 지역을 호남(湖南)이라 지칭했는데, 음악적으로는 호남을 '육자백이 토리'권이라 해왔다. 각 지역마다 맛깔나고 구수한 사투리가 있듯이 그 지역의 독특한 음악적 기법들을 '토리'라 하는데 호남이 바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호남 가운데서도 특히 진도가 전형적인데 담 넘어 문화재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흥겨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민요 육자백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진도를 호남의 대표삼악 '육자백이 토리'권이라 하기도 해왔다.

호남의 육자백이 토리권에는 판소리, 산조, 남도 민요, 호남좌·우도 농악, 진도씻김굿 등 한국 전통음악 가운데 민속악을 대표하는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호남을 뺀 민속악도, 민속악을 뺀 호남도 있을 수 없다. 호남의 민속악은 무엇보다도 호남을 호남답게 하는 전통 유산이다.

민속악을 계승하고 재현하는 호남 출신의 민속악 장인들이 전통음악을 전통음악답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호남의 민속악 가운데 하나가 호남의 삼현육각과 시나위이다.

먼저, 호남의 삼현육각이 왜 호남 전통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지 알아보자. 삼현삼죽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를 지칭한다면, 삼현육각은 관악기 중심의 악기편성법을 말한다.

삼현삼죽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황악기를 이르는 말이다. 고구려의 거문고, 신라의 가야금,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되어 개량한 향비파가 삼현에 해당하며, 신라의 전설을 품고 있는 대금, 중금, 소금을 삼죽이라 이른다.

삼현육각은 피리 2명, 대금 1명, 해금 1명, 장고 1명, 좌고 1명으로 세 가지 관악기(삼현)를 중심으로 한 여섯명의 악기집이(육각) 편성법을 말한다. 조선시대 풍속화중 김홍도의 '무동'이란 그림을 보면, 갓을 쓴 피리 1명, 패랭이를 쓴 피리 1명, 갓을 쓴 대금 1명, 패랭이를 쓴 해금 1명, 갓을 쓴 장고 1명, 패랭이를 쓴 좌고 1명 등 총 여섯명의 악기집이 나온다.

도상학적 재미있는 사실은 피리, 대금, 해금 세 관악기중 해금이 가장 낮은 해금도 패랭이를 쓰고 있으며, 악기중에서도 서열상 두 번째 직급에 해당하는 두 번째 피리와 두 번째 타악인 좌고도 패랭이를 쓰고 있다.

삼현육각은 움직이는 중에도 연주하기 용이하고, 관악기 중심 편성이다 보니 웅장하고, 경쾌한 음악을 연주할 때 편성한다. 이와 달리 풍류 사랑방의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 거문고를 중심으로 한 현악



전통 민속악 편성법 '삼현육각'

피리2·대금1·해금1·장고1·좌고 1명

세 가지 관악기 여섯명 악기집이 편성

웅장하고 경쾌한 선율...연주도 쉬워

굿판의 춤꾼 울고 웃게 하는 시나위

판소리·가야금 산조 등 '창작의 모태'

호남의 멋·흥 머금은 불협화음의 화음

중심의 줄풍류나 세풍류 편성법이 있다.

삼현육각 편성은 궁중악사들이 궁중에서 연주하는 궁중음악의 주된 편성법인데, 그에 그치지 않고 지방관아 등 행사음악에도 쓰이며, 각 지역의 국악에서도 이 형태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궁중악사는 궁중의 경제력에 따라 많을 때는 800여명 이상일 때가 있었고, 역대 국왕들의 제사, 국왕이나 군대의 행차, 국왕과 신하의 모임 등에서 연주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요즘처럼 음향 시설이나 이동 수단이 발달된 게 아니었으므로 관악기 중심인 '삼현육각' 편성이 주를 이루었다.

호남은 곡창지대이자 민속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그렇기에 높은 예술적 경지의 예술인들이 호남으로 모여들었고, 호남 가운데도 나누는 전주와 더불어 전라도 관아의 중심이자 나주평야가 있었기에 삼현육각 명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악기편성의 규모 자체가 컸

며, 질적으로도 높은 예술적 경지를 이루었다.

육자백이 토리를 중심으로 한 남도의 슬픈 정서를 바탕으로 한 '남도 시나위'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 삼현육각은 악기편성법 측면에서도 용어가 쓰이지만, 또한 무용반주에도 자주 사용되어 무용반주 음악을 삼현육각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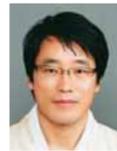
긴 장삼을 어깨에 메거나 허리에 두르고 추는 춤꾼은 굿판을 들었다 놔다 한다. 현재 굿판에 와 있는 이의 슬픔도 기쁨도 아우르고, 이 세상을 떠난 이의 슬픔도 각정도 풀어내는 춤꾼이 지무다.

그 지무의 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이 시나위이며, 특히 호남 지역에 있어서는 삼현육각 중심의 남도 시나위에는 현재의 슬픔을 들어 울리고, 미래의 기쁨을 끌어내는 애잔하면서도 구성된 흥이 있다. 굿거리, 자진모리 장단의 큰 틀 안에서 각각의 악기가 재주를 부리는데, 그 중 늘 악기는 본정 위주로 연주를 하고 있어서 혹, 흥분한 악기들이 다시금 제집으로 찾아오게끔 하여 합주가 이루어진다. 이를 불협화음의 화음 또는 다성음악 효과라 한다.

개인의 장기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큰 흐름의 합주가 가능한 '원초적'인 민중적인 음악'이라고 할까... 또한 그 개인의 장기는 개인의 음악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21세기의 작곡 개념으로 볼 때 개인 창작물인 셈이다. 즉, 삼현육각 편성의 남도 시나위라면 여섯명의 악기집들이 순간순간 작곡을 하면서 큰 장단과 선율을 지켜나가는 '큰음악인' 셈이다.

관악 중심의 삼현육각과 그리고 그 편성으로 했던 많은 음악의 중심에 있었던 시나위는 그곳에 그치지 않고 현재 연주되고 있는 많은 음악들을 창작시키는 모태가 되었다. 울도 시나위 선율을 중심으로 판소리에 쓰였던 장단이 결합하여 19세기 말에 전라도 영암에서 김창조에 의해 가야금 산조라는 기악독주곡이 창작되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악기의 산조로 발전했으며 기타산조, 피아노 산조가 만들어 질 정도로 발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통음악의 보고로 남도민속음악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중 남도시나위 선율이 주목받고 있다. 호남의 음악은 바로 멋과 흥을 함께 머금고 있는 것이다.



-국악 타악 연주자
-전남대 국악과 겸임교수 역임

전라도 들여다보기

칠계 김언거와 풍영정

김형주

칠계(漆溪) 김언거(1503~1584)는 김정(金鼎)의 셋째 아들로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자(字)는 계진(季珍), 본관은 광산이다. 1525년(중종 20) 사마시(司馬試), 1531년 문과병과에 급제한 뒤 옥당(玉堂: 홍문관)에 뽑혀 교리·응교·봉상시정(奉常寺正) 등의 내직(內職)을 거쳐 상주(尙州)·연안(延安) 등의 군수를 지냈다. 승문원 판교(判校)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저서로는 죽외취어(竹窩欸語), 송사절요(宋史節要), 역대명신간소초(歷代名臣諫疏抄), 가례초(家禮抄) 등이 있다. 풍영정 앞을 흐르는 극락강은 칠계(漆川)이라 불렀는데, 자신의 호를 여기에서 따온 것으로 볼 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강호자연을 애호하는 높은 풍류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광주 신창동 극락강변의 선창산 위에 자리한 풍영정(風詠亭)은 근동에서 으뜸의 풍광을 가진 곳으로, 칠계 선생이 명종 15년(1560년) 내직과 외직의 오랜 관료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에 지었다. 이곳에서 그는 82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10여년 동안 송순, 이항, 김인후, 기대승, 고경명 등 이름난 문인들과 교유하며 지냈다. 풍영정에 남아 있는 이들의 제영현판(題詠懸版)은 이때의 흔적이다.

또한, 여기에는 '제일호산'(第一湖山)이라는 편액도 걸려 있는데, 이는 명필 한석봉이 쓴 것으로 전해진다. 풍영정 원운(原韻)은 병조판서 조계원(趙啓運)이 이곳을 지나면서 지은 것으로, 그의 6대손 광주목사 조진민(趙鎭敏)이 새겨 걸었다. 1948년 후손들이 지붕을 수리하였는데, 당시의 기록이 풍영정수리후추모서시(風詠亭修理後追慕敘實) 현판으로 남아 있다.

선생은 학문과 덕망이 높아 낙향할 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12세나 되는 정자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풍영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자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말았다. 풍영정만 소실을 면한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다른 정자들이 다 타버리고 풍영정이 불길에 휩싸이자 현판 글자 가운데 앞의 '風'자가 오리로 변해 극락강 위로 날아올랐다. 기이하게 느낀 왜장이 즉시 불을 끄도록 하자 극락강의 오리가 현판에 날아들어 다시 글씨가 되찾아 되살아났다.

현재 정자에 걸린 현판의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風'(풍자)와 '詠亭'(영정의) 글씨체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전설이 생겨난 까닭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냇물과 산자락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라 하여 '제일호산'(第一湖山)이라는 편액이 걸릴 정도로 한 동안 광주지역에서 이곳의 풍치를 압도할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단정되었던 곳이 풍영정이었다.

옛날에는 풍영정 앞 극락강이 수량이 풍부하여 영산강의 수로로 이용되었으며 풍영정을 둘러싼 수많은 사연의 일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빼어난 정자도 장구한 시대의 변천과 주변환경의 변화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일까?

이제는 풍영정의 바로 밑자락까지 집단주거시설인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 채워지고 말았다. 인위를 배제하고 자연의 순수주의를 표방한 선인들의 풍류문화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주거생활문화의 공존을 시대적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없이 안타깝게 따름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